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북 초등학교 교장

무공해 무농약, 무화과를 애용하자

무공해 무농약 과일인 무화과가 주산지인 영암군(군수 전동평)에서 8월 중순부터 출하되고 있다. 과일나무 중에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과일나무는 무화과나무다.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과일나무에 피해가 컸으나 무화과나무는 피해가 적었다. 과일나무 중에서 그해에 심어 그해에 열매가 열 수확하는 과일나무가 무화과나무다. 필자는 2017년 12월 초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39-5 풍민농장(박병윤 010-3365-2119)에서 무화과 묘목 60주를 사들여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공한지에 심었는데 묘목에서 3-4개의 줄기가 나와 무화과가 열었으며 올해는 8월 말부

터 수확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무화과는 공한지에서도 재배하기 쉽고 심은 묘목에서 올해에 열매가 열 수확하는 과일묘목으로 공한지에 심어 '웰빙 과일'로 이용됐으면 한다. 무화과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터키) 지방인데 우리나라 최남단인 영암군 삼호읍과 인근 지역에서 집단으로 재배되고 있다. 구약성서에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 자신들의 몸을 가릴 때 쓰던 나뭇잎도 바로 무화과 잎이었다. 무화과는 무공해 과일이며 옛날부터 민간 의료 약으로서 성격이나 동의보감에 아주 소중한 여겨왔다. 효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 식품으로 혈압 강하, 건

위, 자양, 변비, 간장염, 암, 부인병 활력 회복 등에 좋고 설사를 멈추고 인후통을 낮게 한다고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위장과 당뇨 환자는 무화과가 좋다는 평을 하고 있어 선호한다. 무화과는 꽃의 종류, 수분의 필요 유무에 따라 원예적으로 카프리계, 스미르나계, 보통계, 산페드로계의 4종으로 분류되며 한국에서는 보통계와 산페드로계를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남도 영암에서 130ha를 재배, 연간 1,500t을 생산하며 재배면적 기준 전국 대비 72%, 생산량은 국내 총생산량의 83% 이상을 생산한다고 한다. 무화과는 면역성이 강해 병해충

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전혀 하지 않는 유일한 무공해 식품이다. 그러나 기후가 따뜻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재배 주산지는 한정되어 있다. 묘목 생산은 꺾꽂이하여 대량생산할 수 있다. 전라남도 영암군은 전국적으로 이튿날 무화과 재배단지다. 무화과나무가 영암군 삼호읍에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영암군 삼호읍 초대 농협 조합장 고 박부길 씨의 주도 하에 재배 과수로서 기술을 정립했다고 한다.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박부길 씨가 농협 초대조합장으로 취임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무화과를 들여왔고 당시 박 조합장

은 무화과가 삼호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의 보급과 육성에 팔을 걷었다. 조합원 교육을 위한 책자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무화과, 영리 재배의 실제>를 발행한 것도 그즈음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 조합장이 무화과 재배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무화과 재배사업도 잠시 멈췄지만, 이후 박영중 조합장과 1970년대 당시 삼호농협에서 영농부장으로 근무한 고재서(영암군 삼호읍) 씨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전라남도는 장기계획을 세워 선진농업을 하려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32억 원을 투자하여 △보성 대마, △장흥 호박, △진남농업 등 3개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08년 사업으로는 ▲여수 돌산 잣, ▲광양 고로쇠, ▲고흥 유자 부산물(유자 씨, 파지) 활용 상품화, ▲화순 천혜 잡곡 생산기지 특구 조성, ▲장흥 표고버섯 균주 은행 및 신종종 육성 브랜드화, ▲영암 무화과 산업화육성, ▲장성 연시 과육을 활용한 병과류, 젤리 상

품화, ▲완도 삼지구엽초·황칠나무 명품화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다 선정되어 사업당 10억 원 규모로 재배, 가공, 유통, 관광, 서비스산업 등 복합적으로 융합 지원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했다. 1촌 1품의 특화된 농산물을 발굴하고 재배 육성하여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농도인 전남에서 새바람이 일고 있는 것에 흐뭇한 생각이 들게 한다. 무화과는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8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하여 11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과일로서 공한지에서도 잘 자란다. 필자는 터키 여행에서 특산물인 건포도와 건무화과를 사 왔는데 무화과가 값이 건포도보다 고가였지만 관광객들이 선호하며 사고 있었다. 그것은 무화과가 무공해 무농약 농산물이기 때문이었다. 무화과의 주산지인 영암군에서는 무화과를 이용한 각종 식품도 개발한다고 하니 앞으로 무화과는 웰빙 과일로서 향토육성사업으로 크게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폐장 해수욕장 안전사고 위험 없는 것 아니다
조석으로는 제법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10월이지만 그래도 가을 한낮의 햇볕과 바람은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처럼 따사로운 가을날씨에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을 하던 사람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가족단위로 호젓한 바닷가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올 여름 코로나 여파로 찾는 사람이 줄면서 사실상 조기 폐장을 한곳이 많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세가 한풀 꺾이는 듯 수치가 속속 발표되면서 우리 생활 주변 유명 해수욕장과 바닷가

Table with emergency contact numbers for various services like '이주여성 긴급전화', '응급질병상담', etc.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율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